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윤동주 시에 관한 小考 - 「서시」를 중심으로

Zhu, Yu

(고려대)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윤동주 <서시>를 비교 분석하여 중국과 일본에서의 윤동주 시에 대한 인식 차이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문학 작품 번역은 국내 문학을 해외로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번역 연구가 활성화되어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 내에서 윤동주 관련 연구는 많으나 윤동주 작품을 세계로 알리는 그의 작품 번역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한국, 중국(간도), 일본 삼국에서 모두 생활한 특수한 배경을 가진 작가로 윤동주 작품의 중국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에 관한 비교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윤동주 시인과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현재까지 중국어로 번역된 운동주 작품에 관한 연구는 중국에서 주로 시인의 사상과 문학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작품에 관한 연구도 산문에 관한 번역연구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번역 시 자체에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없다.¹⁾ 그리고 중국에서 운동주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알려진 이들에게도 항일·저항 시인이라는 단편적 모습으로만 인식²⁾되어있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운동주의 시가 번역·전파되어 다각도로 이해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관련 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는 시집이 출판되었으며 1990년에는 문부성(文部省)이 검정한 고교 교과서(高校教科書)에 운동주의 <서시>가 실리게 되었다.³⁾ 같은 작품이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완전히 다르게 전파되고 인식되어 온 것은 학자들 연구의 영향이 컸을 것이며 특히 번역 시의 영향은 지대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운동주 작품의 번역이 해외 전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인용한 <서시> 번역 시의 출처는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정식으로 출판된 시집이다. 공식적으로 출판된 시집이 현지 독자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시집에 실린 번역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⁴⁾ 현재까지 중국어로 출판된 운동주의 시집으로는 최문식과 김동훈(崔文植、金東勳)이 편집하고 자형(紫荊)이 번역한 《운동주유시집(尹東柱遺詩集)》(1996.12)⁵⁾, 배다

- 1) 2018년 10월 30일 중국 최대 학술 사이트 CNKI(中國知网)에서 키워드 운동주로 검색된 총 25편의 논문을 모두 분석한 결론이다. 산문 연구로는 동영 ‘운동주 산문에 대한 중국어 번역과 연구’ (한양대 학위논문, 2017)만 찾을 수 있다.
- 2) 중국의 대표 논문 검색 사이트 CNKI에 운동주 키워드로 검색한 20여 편의 논문 중 10여 편이 운동주 사상 관련 연구이다.
- 3) 일본 위키피디아 홈페이지 관련 사항 참고. 2018년 2월 18일 검색. <https://ja.wikipedia.org/wiki/%E5%B0%B9%E6%9D%B1%E6%9F%B1> 원문:日本では1960年代頃から訳詩が試みられた。1984年伊吹郷の訳により<空と風と星と詩>として訳詩集が影書房より発行され、1986年には文部省検定の高校教科書に掲載された。 교과서 <現代文>(筑摩書房, 1986)의 본문에 수록된 <이바라키 노리고의 수필(茨木のり子の随想)>에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운동주’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 4) 중국의 대표 학술논문 사이트인 CNKI에서 운동주 시인의 시에 관한 연구를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참고한 번역 시의 출처는 모두 출판된 시집이었고, 일본에서 논의가 되는 번역 시의 출처 또한 시집에 수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니엘(裴但以理)이 번역한 《하늘 바람 별과 시(天·風·星星與詩)》(2011), 이영(裏詠)이 번역한 《천공을 바라보아 조금의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이 없음(仰望天空毫無愧恨)》(2012) 등이 있다.

일본어의 경우 이부키 고(伊吹郷)가 번역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空と風と星と詩)》(1984), 우에노 준(上野 潤)이 번역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율동주 시집(天と風と星と詩' 一尹東柱詩集)》(2003), 김시종이 번역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空と風と星と詩)》(2012), 우에노 미야코(上野 都)가 번역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空と風と星と詩)》(2015) 등이 있다.

2. 시 번역원칙과 <서시>의 내용

2.1 시 번역의 원칙

영국의 번역 이론가 알렉산더 타이러(Alexander Fraser Tytler)는 《번역원칙을 논함 Essay on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이라는 저서에서 “훌륭한 번역이라면 원문의 장점을 손색없이 역문에 옮겨 놓음으로써 역문 언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이 원문 언어문자를 쓰는 나라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번역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⁶⁾

1. 역문은 원문의 사상을 철저히 옮겨 놓아야 한다.
2. 역문의 풍격과 어조는 원문의 것과 같아야 한다.
3. 역문은 원문과 마찬가지로 유창하여야 한다.

중국의 계몽사상가 엄복(嚴復)은 1898년 《천연론(天演論)》을 번역하고

5) 이하 자형(紫荊) 번역으로 간략하게 서술할 것임.

6) Woodhouselee Alexander Fraser Tytler Lord, 《Essay on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 London: J. M. Dent & co. ; New York: E. P. Dutton & co, 1907, 25 쪽. 이용해, 《중한번역 이론과 기교》, (서울: 국학자료원, 2002)의 내용을 재인용.

‘신(信), 달(達), 아(雅)’라는 번역표준을 내놓았다. 이는 중국에서 제시된 최초의 번역표준이라 할 수 있다. 엄복이 제기한 ‘신’은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고 ‘달’은 역문이 순탄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는 표현이 우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문학가이자 번역가인 노신 또한 번역에 대해 “번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당연히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다른 하나는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⁷⁾라는 말을 남겼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번역가 허연충(許淵沖)은 위에서 엄복과 노신이 제기한 번역표준과 번역이론을 기반으로 이론을 발전시켜 삼미(三美 이론⁸⁾)을 제창하였으며 중국 시 번역의 3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 중 첫째는 ‘의미(意美)’, 즉 원작 시의 의미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번역된 시는 원작과 같이 독자들을 감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음미(音美)’, 즉 ‘원문의 음(운율)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번역 시는 원래의 시와 같이 듣기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형미(形美)’, 즉 원작 시의 형식(길이, 맞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은 ‘음미’, 제일 마지막으로 ‘형미’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음미’를 살리고, 또한 이 둘을 잘 표현하는 전제하에 마지막으로 ‘형미’까지 겸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이론들은 사실 모두 일맥상통한다. 종합하면 좋은 번역이란 충실성과 가독성⁹⁾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원문의 의미와 형태에 충실하면서

7) 원문: ‘凡是翻譯, 必須兼顧兩個方面, 一則求其易解, 一則保存原作豐姿’이다.

8) 1979년, 허연충은 《역시연구(譯詩研究)》에서 “삼미(三美)” 원칙을 내놓음. 엄복의 “信、達、雅”와 노신의 직역이론, 그리고 임어당(林語堂)의 미학(美學), 곽말약(郭沫若)의 창작론(創作論), 주광잠(朱光潛)의 예술론(藝術論), 박리(傅雷)의 신사(神似), 전중서(錢鍾書)의 화경(化境) 등 제반 번역이론을 기반으로 번역이론을 발전시켰다. 여기에는 “三美”(音美·形美·意美), “삼사(三似)”(形似·意似·神似), “삼화(三化)”(深化·等化·淺化)와 “삼지(三之)”(知之·好之·樂之)의 번역이론이 있다. 본문에서 선택한 것은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삼미론 즉 “음미(音美)”, “의미(意美)”와 “형미(形美)”이다.

9)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이은숙, 《번역의 이해》, (서울: 동인, 2009)

독자들이 쉽게 읽히면서도 시의 아름다움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원문의 충실성 여부와 역문의 가독성에 초점을 맞추어 윤동주 번역 시를 분석할 것이다.

2.2 <서시>의 전문과 시 해석상의 특징

<서시>는 윤동주가 1941년 11월 20일에 창작한 시이며 그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는 윤동주의 생애와 시 전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서시>는 윤동주의 좌우명 격 시인 동시에 절명 시이고, 또한 ‘하늘’과 ‘바람’과 ‘별’의 세 가지 천체적 심상(心像)이 서로 조응되어 윤동주 정서의 한 극점을 이루고 있다. 그 원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서시> 전문

<서시>는 시어의 다의성과 생략, 어휘 결합으로 인해 생기는 함축성과 의미 상충에 의한 모호성¹⁰⁾으로 다양한 시적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가장 일반적

에서 정리한 74쪽과 78쪽의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함.

10) 시론에서 모호성은 애매성(ambiguity)으로 불리기도 한다. 애매성은 하나의 시어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일종의 다의미성으로서 의미의 중층성 또는 풍요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철, 《현시론》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3), 76쪽.

인 해석으로 김효중(2007)에서 <서시>에 대한 해석을 보면 아래와 같다.

<서시>에서 시인은 먼저 죽는 날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을 두고 굳게 다짐한다. 그러나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감성의 소유자인 그에게 민족적 현실은 너무나 압담했다. 그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항상 변하지 않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한 치의 부끄러움과 뉘우침이 없는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자기를 지키며 살 수 없는 것이 한민족의 현실이었고 사람들이 훼손하여 치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도 그러한 현실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변해서는 안 될 별이 바람에 스치우고 있음을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시에는 “순진무구한 경지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뉘우치고 괴로워하는 마음 자세”가 나타나 있는 것이 특색이다.¹¹⁾

<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시>를 어떤 시로 보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시>는 시어의 다의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특히 사물에 투영된 시인의 심리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물 ‘하늘’, ‘바람’, ‘별’의 상징적 의미는 시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¹²⁾ 예를 들어 <서시>를 저항 시로 본다면 ‘하늘’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드높은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기독교적 개념으로 보았을 때는 ‘황천’을 의미하며 순수문학적 텍스트로 접근한다면 천진무구의 순진함이나 순수함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해석은 ‘부끄럼’과 ‘괴로움’에 대한 해석과도 연결된다.¹³⁾

둘째는 생략에 의한 모호성에 대한 해석이다. 즉 1, 2행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에는 마지막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문맥상

11) 김효중,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번역학연구》, 2007), 91쪽.

12) 김현수, <윤동주 <서시>의 의미 연구>(《한국시학연구》, 31집, 2011)에서 <서시>의 의미를 논할 때 모호성에 관한 내용을 참고함.

13) 하늘의 맑고 깨끗함에 주목한다면 부끄럼은 천진무구의 순진함이나 순수함을 잃는 것에 의한 것이고 하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드높은 이상으로 본다면 부끄럼은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괴로움을 뜻한다. 하늘을 기독교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부끄럼은 종교적 삶과 괴리되면서 갖는 정신적 아픔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생략된 말은 ‘기원하였다’, ‘소망하였다’, ‘바랐다’ 등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기를’과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문장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연결사를 다르게 씌에 따라 인과 관계, 병렬 관계, 또한 대립 관계가 될 수도 있다.¹⁴⁾

셋째는 어휘의 결합에서 오는 함축적인 의미와 의미 간의 상충에 대한 해석이다. 예를 들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에서 ‘잎새에 이는 바람’은 어떤 바람인 것 인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번역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괴로움’을 어떤 괴로움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번역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구절에서 ‘바람’과 ‘별’을 자연 대상물 그 자체로 보고 해석하는 경우 ‘스치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스쳐 지나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별’을 견고하고 확고한 그 무엇으로 상정하였을 때 ‘바람’은 외부의 시련이나 역경으로 해석되어 ‘스치운다’는 흔들린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아래 번역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서시>의 중국어 번역

3.1 자형(紫荊)의 번역

자형의 번역은 1996년 최문식·김동훈(崔文植·金東勳)이 편집하여 출판한 《윤동주유시집(尹東柱遺詩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한 윤동주 시집이며, 가장 대표적인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 14)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다.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고,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다.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지만,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했다.
 김효중,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 (번역학연구, 2007), 93쪽.
- 15)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 사이트 cnki에서 윤동주 관련 논문을 찾아본 결과 논문에 인용된 시는 대부분 이 번역본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윤동주의 고향 화룡시에 있는 시비에 새겨진 중국어 번역 시이기도 하다.

번역 비평은 번역자에 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윤동주 시의 번역자 자형은 한국어에 능통하여 문학과 작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번역작품으로 인정받은 번역자이다.¹⁶⁾

仰望天空至死无一点羞愧
爲此，在輕撫樹叶的風中我也感到痛苦
我要用心聲歌唱那清澈的星
熱愛那行將死亡的所有一切
還要起程走我自己的路。
今夜，風擦着星而過。

번역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천공을 우러러 보아 죽을 때까지 한점의 수치스러움(羞愧)¹⁷⁾이 없기를/이를 위해서, 나뭇잎을 가볍게 쓰다듬는 바람 속에서도 나는 고통을 느꼈다(仰望天空至死无一点羞愧/爲此,在輕撫樹叶的風中我也感到痛苦)’가 첫 문장이다. 여기에서 ‘이를 위해(爲此)’란 접속사를 넣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였으며 의미를 구체화하여 시어의 모호성이 배제되었다. 이는 원문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로 해석한 것이다. 즉 인과 관계로 해석한 것인데, 원문에 연결고리가 생략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을 위배했다고는 볼 수 없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마음의 소리로 그 맑은 별을 노래(가창)하고/ 그 죽음으로 가는 모든 것을 열렬히 사랑하리라/ 그리고 길을 나서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我要用心聲歌唱那清澈的星/熱愛那行將死亡的所有一切/還要起程走我自己的路)’로 번역했다. 여기에서 ‘마음의 소리로(用心聲)’를 앞에 두고 그 뒤에 “노래하다(歌唱)”와 ‘열렬히 사랑하다(熱愛)’라는 동사를 배치하여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다. ‘노래하는 마음으로 저 맑은 별을 노래하고, 곧 죽어가는 모

16) 본명은 최자갑이고 소수민족이고 북경대학 조선어문학과를 졸업하였다. 중국에서 문학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변일보사에서 고급편집을 맡고 있다. 또한 30여편의 번역작품이 있고, 여러 번역 수상경력이 있다.

17) 羞愧의 사전적 의미: 自卑, 慚愧 <http://www.zdic.net/c/e/d3/201379.htm>

든 것을 열렬히 사랑하려고 한다'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고 ~할 것이다(還要)'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길을 떠나는 화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은 '오늘 밤, 바람이 별을 스치면서 지나간다(今夜, 風擦着星而過)'이다. 번역문에서 '今夜' 뒤에 쉼표를 써서 위 문장과 확연하게 다른 문장임을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원작과 의미를 달리하고 있어 충실한 번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첨역과 오역한 부분도 보인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를 '나는 마음의 소리로 맑은 별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열렬히 사랑해야지 我要用心聲歌唱那清澈的星/熱愛那行將死亡的所有一切'로 개역하였다. '마음'을 '마음의 소리', '별'을 '맑은 별'로, '사랑하리'를 '열렬히 사랑하리'로 번역하여 자의적인 첨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원문의 의미와의 괴리를 만들어냈다. 오역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가볍게 나뭇잎을 쓰다듬는 바람 속에서도 나는 고통을 느꼈다(在輕撫樹葉的風中我也感到痛苦)'라는 구절에서 '風中 바람 속에서'로 번역한 것은 나 자신이 그 바람을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원시의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와 의미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가독성 측면에서 보자면 번역 시의 운율은 원작 시와 완전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¹⁸⁾ 중국어 번역의 경우 한국어 원시보다 음절 상 단절되는 부분이

18) 윤동주의 운율에 관한 인용은 이혜원, <윤동주 시의 운율 연구>(한국학연구, 2001)에서의 해석을 참고함. 윤동주 <서시>에 대한 끊어 읽기는 아래와 같음.

죽는 날까지/하늘을 우르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죽어가는 것들/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별이/바람에/스치운다.

중국어의 경우 끊김이 더 많다. 중국인 독자로서 끊어 읽기를 해보면:

仰望天空/至死/無一點/羞愧
爲此, 在/輕撫樹葉的/風中/我也/感到/痛苦
我要/用心聲/歌唱/那清澈的星
熱愛那/行將死亡的/所有一切
還要/起程/走我自己的路。

더 많아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준다. 즉, 원래 시의 부드러운 운율적 특색이 퇴색된 것이다. 번역 시를 읽을 때는 호소력이 짙은 항일 시 같은 느낌이 더 강하다. 특히 중국에서 민족이나 나라를 사랑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열렬히 사랑하다(熱愛)’나 ‘우리리보다(仰望)’와 같은 단어의 선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번역자가 운동주를 저항 시인으로 보고 중국에서의 그 시절 항일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한 노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

3.2 배다니엘(裴但以理)의 번역

배다니엘¹⁹⁾은 가장 최근에 중국어로 운동주 시집을 번역한 번역자이며 유일하게 중국어로 운동주 시를 번역한 한국인이다. 그는 운동주 시집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2011년 길림대학출판사에서 《하늘·바람·별과 시(天·風·星星與詩)》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배다니엘의 번역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但愿仰天也全然无愧与心 直到生命盡頭！
 我對叶子上起的風也感到苦惱
 我要以歌頌星星的寸心
 去參愛將死的一切
 而后，我要走上那條付与我的路。

今夜也有風拂過星辰。

먼저 원문에 대한 해석을 보기로 한다. 자형의 번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원작에서의 시어의 모호함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리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연결사 없이 ‘但愿仰天也全然无愧与心/直到生命盡頭！我對叶子上起的風也感到苦惱’로 번역한

今夜/風/擦著星/而過。

19) 번역자는 현재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중국지역 전공) 교수직을 맡고 있다. 《韋應物詩研究》를 시작으로 <중국 자연시>, <중국 영회시>, <당시>, <중국 고전문학이론>, <중문학과 영문학 비교> 등의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중국 시의 전통과 모색》 등 저서가 있다.

것이다. 원문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뒤에 생략된 문장을 ‘但愿’을 넣어 보충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란다’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번역자의 해석에 따라 첨가된 것인데, 원문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역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끄럼’을 ‘无愧与心’²⁰⁾으로 번역하였는데, ‘无愧与心’은 ‘자신(마음)에게 물어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죽는 날까지’는 ‘생명의 끝까지(直到生命盡頭)’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에서의 ‘마음’을 ‘아주 작은 마음(寸心)’으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에는 ‘아주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곧 죽게 될 모든 것을 사랑하리라(去參愛將死的一切)’로 번역하였는데, ‘參愛’는 ‘참배하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기독교적 의미가 있어 원시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좁혀놓았다는 점이다.

가독성의 측면에서 평가하자면 원작의 운율을 가장 잘 살리고²¹⁾ 있어 문장이 더 부드럽게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시는 중국어 원어만이 읽을 때 문장구조가 어색하고 기독교적 색채가 강하다는 직관적인 느낌을 준다. 특히 ‘참배하고 사랑하다(參愛)’와 ‘곧 죽게 될(將死)’ 등의 단어 선택은 종교적 색채가 짙어서 번역자가 원문을 기독교 정신을 노래하는 시로 해석하고 번역한 것이라고 보여지게끔 한다. 이는 번역자의 개인적 배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²²⁾ 하지만 모국어로 쓰여진 시를 충분히 음미하여 서정적 요소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한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번역 시라고 할 수 있다.

20) ‘无愧与心’이란 단어는 중국의 사전 漢典에 검색해도 없는 단어이다. 다만 한자의 의미로 판단할 경우 无愧-부끄러움이 없다. ‘与’는 보통 ‘~와/과’의 뜻으로 쓰이는데 ‘与心’은 ‘于心’의 오역으로 보인다.

21) 但愿仰天/也全然无愧与心/直到/生命尽头! /我对叶子上起的风/也感到苦恼/ 我要以/歌颂/星星的寸心 /去參愛/将死的一切/而后, 我要走上/那条/付与我的路。/今夜也有风/拂过星辰

22) 번역에 있어 역자의 자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본 연구는 번역문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먼저 진행한다.

3.3 이영(裏詠)의 번역

이영은 동북사범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 창작 활동을 해온 작가이다. 그는 민요 ‘아리랑’ 등 많은 민요를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작곡가로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²³⁾

但願/仰望天空毫无愧恨 直到命終的那一刻
連撼動樹葉的微風 也使我內心感到難過
我要以贊美星星的善心 愛待那所有垂亡的衆生者
還要沿着屬於我的路 邁開腳步往前拓

今夜, 星星依然被風掠過

먼저 원문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배다니엘의 번역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뒤에 ‘~하길 바란다(但願)’라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발을 내디디어 나에게 속한 길을 따라 앞으로 헤쳐나가야지(還要沿着屬於我的路 邁開腳步往前拓)’로 번역하여 ‘앞으로 내디디어(邁開)’라는 단어와 ‘앞으로 헤쳐나가야지(往前拓)’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이 부분에 첨가된 번역은 의미상 원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장으로 원문 충실의 원리에 어긋나는 번역이다.

이 번역에서는 ‘노래하는’을 ‘찬양하고 노래하다(贊美)’로 번역하였으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모든 죽음으로 향하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리(愛待那所有垂亡的衆生者)’로 번역함으로써 강한 불교적·도교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愛待’ 역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다.’는 의미로 불교적·도교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

가독성의 측면에서는 운율의 변화가 있음에도 최대한 원시의 느낌을 유지하려 했다. ‘나뭇잎을 세계 흔드는 미풍마저도 나의 마음속은 괴로움을 느꼈다(連/撼動樹葉的微風 也/使我內心/感到難過)’에서와 같이 ‘마저(連)’과 ‘도(也)’

23) 그가 작사한 ‘금달래’는 중국 최고의 음악 상인 ‘금종상(金鐘賞)’을 받았고, 또한 ‘산가수매(山家水妹)’는 2008년 새로운 작사 작곡 대상을 받았으며, ‘우리의 아시아’ 등은 6회 아시아 올림픽 주제곡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를 넣는 등 운율을 맞추고자 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²⁴⁾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를 ‘죽어가는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리(愛待那所有垂亡的衆生者)’로 번역하는 등 서정시의 느낌이나 저항적인 느낌보다는 ‘박애(博愛) 주의’를 연상케 하는 번역 방식을 채택하였다.

4. <서시>의 일본어 번역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언어적 구조 때문에 직역이 가능하여 의미 전달이 더 명확하고 번역 시 또한 더 자연스럽다. 일본어 번역본은 1995년에 조형균이 일본어 번역본의 문제점을 제기²⁵⁾하면서부터 화제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쟁점을 두고 학자들이 끊임없이 논쟁함에 따라 새로운 번역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제기한 일본어 번역본의 오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하늘’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에 대한 번역이다.²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쟁점에 치우친 논의보다는 각 번역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4.1 이부키 고(伊吹郷)의 번역

이부키 고는 일본에서 최초로 운동주의 시집을 번역 출판하였다. 그의 번역 시는 지금까지 라디오에서 낭송되고 곡이 붙여져 노래로 불리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인용되어 게재되었고 시문으로 새겨졌으며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24) 但願/仰望天空/毫無愧恨/直到/命終的/那一刻
連/撼動樹葉的/微風, 也/使我內心/感到難過
我要以/贊美星星的/善心, 愛待那/所有垂亡的/眾生者
還要/沿著/屬於我的路, 邁開/腳步往前拓
今夜, 星星/依然/被風/掠過

25) 조형균, ‘왜곡된 일본어 역’(서울:조선일보, 1995.10.31.)에서 일본어 번역본의 ‘하늘’에 대한 오역을 지적하고 제 문제점을 제기.

26) 오무라다이후(大村益夫), <尹東柱をめぐる四つのこと>(《星うたう詩人尹東柱の詩と研究》, 1997)의 내용 참고.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²⁷⁾ 그리고 도지사(同志社) 대학교에 있는 운동주 시비에 새겨진 일본어 번역 시 역시 이부키 고의 번역이다. 최근 그의 번역에서 ‘하늘’에 대한 오역 역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는 최초 번역자이며 민간인으로서 는 처음으로 운동주의 판결문까지 자신의 시집에 실었고 최근에는 운동주 평전까지 번역하는 등 다양한 업적이 있어 운동주 번역 시 연구에 선행적으로 살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 시는 아래와 같다.

死ぬ日まで空を仰ぎ
 一点の恥辱なきことを
 葉あいにもそよぐ風にもわたしは心痛んだ。
 星をうたう心で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歩みゆかねば
 今宵も星が風に吹き晒らされる。

역문은 원문의 9행시를 6행으로 번역하였다. 원문의 1, 2행은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의 부끄럼이 없기를(死ぬ日まで空を仰ぎ / 一点の恥辱なきことを)’로 번역하였고, 원문의 3, 4행은 한 문장으로 통합하여 ‘잎 사이에 살랑이는 바람에도 나는 마음이 아팠다。(葉あいにもそよぐ風にもわたしは心痛んだ)’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5, 6행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星をうたう心で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라는 한 문장으로 번역하였다. 7, 8행도 하나의 문장인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해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歩みゆかねば)’로 번역하였으며 9행은 그대로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맞아(今宵も星が風に吹き晒らされる)’로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전체적으로 운동주 서시의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번역하였으나 마지막 행의 ‘바람에 스치운다’를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맞아(今宵も星が風に吹き晒らされる)’로 번역하여 역자의 해석을 첨가하였다는데, 오히려 첨역을 통해 미적 정통성을 살리고 원시의 느낌도 잘 살린 것으로 보여진다.²⁸⁾

27) 심원섭, <일본 고등학생들이 읽은 운동주> (현대문학의 연구, 63권 0호, 2017) 9쪽.
 28) 佐川亞紀, <尹東柱-「序詩」をめぐって>, 《韓國現代詩小論集》, 3쪽.

비록 오무라 마스오와 김지영의 견해나 조형균²⁹⁾의 문제 제기와 같이 하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가와 아키(佐川亞紀)의 의견을 빌려 말하자면 틀린 번역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가독성 측면을 보았을 때 4행의 ‘いとおしまねば’ 그리고 5행에서의 ‘道を歩みゆかねば’ 모두 ‘~ね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으로써 독자들이 읽을 때 더욱 시적인 느낌을 받게 하였다. 특히 ‘そよぐ(바람이 살살 이는 느낌)’, ‘今宵(오늘 밤)’의 단어 선택은 낭만적이면서도 시적인 느낌을 충분히 전달한다. 일반 대중에게 있어 시를 수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독성이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부키 고의 번역 시가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4.2 우에노 준(上野潤)의 번역

우에노 준은 일본의 시인이자 연구자이다. 그는 현재 도쿄 불교 대학과 교토 여자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息絶える日まで天《そら》を仰ぎ
 一点の恥の無きことを、
 木の葉にそよぐ風にも
 私は心痛めた。
 星を詠う心で
 全ての死に行くものを愛さねば
 そして私に与えられた道を

29) 오무라 마스오의 <尹東柱をめぐる四つのこと>, 108쪽에서 ‘서시를 쓴 1941년 11월 20일을 말하자면 … 모든 것이 죽어가는 시대였다. 그런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부르짖은 것은 죽어가는 것들에 강한 증오가 깃들여있다. 그것을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다면’으로 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과 죽음에 쫓기는 것도, 똑같이 사랑해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비판하였다. 원문: <序詩>を書いた一九四一年十一月二〇日といえは…すべてが《死にゆく》時代だった. そうした《死にゆくもの》を《愛さねば》と叫んだ彼は, 死に追いやるものに対しては激しい憎しみがあつたはずである, それを《生きとし生け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では, 死にゆくものも, 死に追いやるものも一様に愛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かろうか>

歩み行かねばならない。

今夜も星が風に擦れている。

번역문 2는 원문의 9행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번역하여 형식 면에서는 원문에 가장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번역에서는 앞서 조형균 등의 비판적 의견을 받아들여 하늘을 ‘天《そら》’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하늘을 그냥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Sky)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이 있는 ‘天 덴’으로 번역하였다.³⁰⁾ 이 번역문의 특징은 시 전체에서 아주 강한 의지와 결연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괴로워했다’를 ‘마음 아파했다(心痛めた)’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번역자는 원시를 저항시로 인식하고 저항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번역한 결과로 보인다.

4.3 우에노 미야코(上野都)의 번역

우에노 미야코 시인의 번역은 가장 최근의 번역이다. 일본의 대표 시인으로 손꼽히는 이시카와 이치코는 그의 시 번역에 대해 “우에노 시인은 앞세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운동주 시인의 섬세한 마음과 영혼까지 느끼게 해 주는 뛰어난 번역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우에노 미야코는 현재 일본에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시집³¹⁾과 번역 시집을 출판하였다. 우에노 미야코가 번역한 번역문은 아래와 같다.

召される日まで天を仰ぎ
いかなる恥もなさぬことを、
一葉(ひとは)に立つ風にも
わたしは心を痛めた

30) 김응교, <일본에서의 운동주 인식>(《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009)의 43쪽

31) 대표작으로 <웨어리 링스(1968)>, <여기에(1998)>, <지구를 도는 것(2013)> 등이 있다. 번역작품으로는 김리박 시인의 <건축비가 (1996)>, <삼도의 비가 (2013)> 등이 있다. 그는 1992년 조선어교실에서 한국어를 수학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 왔으며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였다. 그는 중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배워 운동주의 시를 번역해보겠다는 꿈을 갖고 50년을 노력해 온 것이다.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滅びゆくものを慈(いつく)しまね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いてゆかねばならない。
 今夜も星が風にかすれて光る。

우에노 미야코의 번역 또한 원래 9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번역하였다. 한국어와 일대일 대응의 방식으로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위의 두 시와 비교했을 때 형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번역에 있어서 단어 선택이 특징적이다. 이 번역에서는 죽는 날까지를 ‘불려가는 날까지(召される日まで)’로 번역하여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데, ‘召される’은 신이나 하늘의 부름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번역에서 ‘스치운다’를 ‘살며시 치우쳐 빛난다(かすれて光る)’로 번역하여 ‘光る’를 첨역하였고,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가 지적한 바와 같이³²⁾ 필자 역시 불필요한 첨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역 시인인 만큼 일본어로 읽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읊어지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정서를 잘 살려 가독성 면에서는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4.4 김시중(金時鐘)의 번역

김시중(金時鐘)³³⁾은 부산에서 태어나 1949년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일본 공립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쳤고 오사카 문학 학교에서 이사장직도 역임하였으며 현재까지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일본 풍토기 시집’ 등 다수 작품을 창작하였고 그의 작품은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³⁴⁾

32) 오무라 마스오 <윤동주 시의 일본어 번역-서시를 중심으로>(비교한국학, 26집, 2018).

33) 2003년 한국 제주도에 돌아와 본적을 얻고 한국국적을 가졌다.

34) 1986년 제40회 매일출판문화상(毎日出版文化賞)을 받았고, 1992년 <원야의 시(原野の詩)>로 25회 소옹수용상 특별상(小熊秀雄賞特別賞)을 받았으며, 2011년에는 <사라져 가는 계절(失くした季節)>로 41회 고견순상(高見順賞)을 받았다. 2015년에는 <조선과 일본에서 살다(朝鮮と日本に生きる-濟州島から猪飼野へ)>로 대불차랑상(大佛次郎賞) 등을 받음.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じ入ることもないことを
 葉あいにおきる風にさえ私は思い煩った。
 星を歌う心で
 すべての絶え入るものをいとおしまねば
 そして私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いていかねば。

今夜も星が 風にかすれて泣いている。

김시종의 번역은 윤동주 시인의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어 번역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단어는 ‘하늘’, ‘부끄러움’ 그리고 ‘모든 죽어가는’ 이다. 김시종의 번역은 원작의 모호성을 그대로 살려 하늘을 ‘天 덴’으로 ‘부끄러움’을 ‘창피(恥じ入る)’로, ‘죽어가는 것’을 ‘사라져 가는(絶え入る)’이라고 번역하였다. 김지영³⁵⁾은 김시종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원문에 대한 첨역이 있는데, 마지막 연을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어 울고 있네(今夜も星が 風にかすれて泣いている)’로 번역하여 원문에 ‘울고 있다(泣いている)’는 의미를 첨가하였다. 원문의 해석에 역자가 임의로 첨역한 것으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보기는 어렵다.³⁶⁾

5. 결론

지금까지 윤동주 <서시>의 중국어 번역과 일본어 번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은 원문 충실성 여부와 가독성에 초점을 두어 번역문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는지, 그리고 독자들이 읽었을 때 쉽고 편하게 읊어지는지를 중심으로

35) 金智英, <尹東柱詩の翻訳問題再検-茨木のり子による伊吹郷訳評価を通して>(境界を越えて: 比較文明学の現在, 17호, 2017)의 4쪽

36) 오무라 마스오 <윤동주 시의 일본어 번역 - 서시를 중심으로>(비교한국학 26집 2018) 12쪽에서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워 울고 있네(今夜も星が 風にかすれて泣いている)’의 번역에는 역자의 감정이 과다 이입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찰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국의 경우는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저항시가 가장 대표적인 번역 시이고 중국어 번역은 가독성 면에서 원시의 시적인 감성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일본어의 경우 서로 다른 역사적 요인과 시대적 요인으로 인해 서정시가 가장 대표적인 시이며 한국어와 비슷한 일본어의 구조적 특성과 현역 시인들의 번역 등으로 인해 일본어 번역 시들은 가독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선 두 언어의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운동주 관련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 학자들의 운동주 서시에 대한 논의³⁷⁾가 진행되면서 일본의 경우 다양한 번역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시대적 배경이 부각되어 저항시로만 번역되었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번역 시 관련 연구도 저조하다. 중국에서 혁명시와 같은 저항시를 즐겨 읽는 시대는 지났으며 운동주 시인이 갖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정서를 담은 시를 원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인터넷에서도 현재의 번역 시들에 아쉬움을 느껴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자체적으로 번역한 시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³⁸⁾ 이런 풍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운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가 더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새로운 번역 시집의 출판과 운동주 시집의 중국어 번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운동주 시인의 시를 사랑하는 중국인으로서 운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운율과 감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하고, 문학 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논문을 마친다.

37) 홍이표 “서시 오역에 운동주 두 번 운다: 운동주의 하늘은 ‘소라 空’가 아니라 ‘덴 天’”(오마이뉴스 2006년 8월 22일)과 앞서 논의한 김지영, 사가와 아키, 오무라 마스오의 ‘譯が詩を殺す…尹東柱の<序詞>について’, ‘번역이 시를 죽인다’, <운동주의 서시에 대하여> 등의 논의가 있었음.

38) 중국의 최대 사이트인 www.baidu.com에서 운동주 서시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블로그에서 사용한 서시의 번역문은 대부분 자체 번역한 것임.

참고문헌

(1) 중국과 일본 번역 자료

- 윤동주(1955)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正音社.
 마광수(2005) 『윤동주 연구』, 철학과현실사.
 崔文植, 金東勛 (1996) 『尹東柱遺詩集』, 중국: 延邊大學出版社.
 裴但以理(2011) 『天·風·星星与詩』, 중국: 吉林大學出版社.
 裏詠(2012) 『仰望天空毫無愧恨』, 중국: 延邊人民出版社.
 伊吹郷(1984) 『空と風と星と詩』, 東京: 影書房,
 上野潤(1998) 『天と風と星と詩』, 東京: 詩畫工房.
 金時鐘 編譯(2012) 『空と風と星と詩: 尹東柱詩集』, 東京: 岩波書店.
 上野都 (2015) 『空と風と星と詩』, 東京: コールサク社.
 許淵冲 (1984), 『翻譯的藝術』, 北京: 中國對外翻譯出版公司.
 김재현(1995) 『번역의 원리와 실제』. 한신문화사.
 Woodhouselee Alexander Fraser Tytler Lord (1907) 『Essay on the Principles of Translation』, London: J. M. Dent&co.; New York: E.P.Dutton& co.

(2) 참고 논문

- 김응교(2009) 「일본에서의 윤동주 인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3(1): 37-72
 김현수(2011) 「윤동주 ‘序詩’의 의미 연구」, 『한국시학연구』 31(1):119-140
 김효중(2007) 「문학 번역과 문화적 문맥」, 『번역학연구』, 8(1):83-105
 동영 (2017) 『윤동주 산문에 대한 중국어 번역과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양선(2005) 「‘序詩’의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 ‘序詩’의 제목을 예외싼 문제와 시어 ‘바람’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시문학』 16(2):96-131
 심원섭(2017) 「일본고등학생들이 읽은 윤동주」, 『현대문학의 연구』, 63(0): 127-152.
 유명우(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1(1): 229-248
 윤미화(2013) 『한국 현대시의 중국어 번역 연구, 등가적 표현과 시적 효과의 전달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우(2003) 「견고한 거울과 또 다른 고향: 윤동주 시의 자아 성찰과 새로운 세계의 모색」, 『한국근대문학연구』, 4(2): 298-322
- 이수정(2017) 「윤동주 자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수사적 특징」, 『한국시학연구』, 1(50): 11-27
- 이혜원(2001) 「윤동주 시의 운율 연구」, A Study on the Rhythm in Yoon Dong-joo's Poems, 『한국학연구』 15(1): 73-111.
- 정영호(2009) 『번역과 근대시 형성, 김억(金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大村益夫(1997) 「尹東柱をめぐる四つのこと」, 『尹東柱詩碑建立委員会編『星うたう詩人尹東柱の詩と研究』 三五館, 104-24.
- 張春植 (2010) 「与星對話－朝鮮族現代詩人尹東柱与他的詩」, 『民族文学研究』.
- 佐川亜紀 (2000) 「尹東柱－「序詩」をめぐる」, 『韓国現代詩小論集』 土曜美術社出版販売.
- 代玉華 (2012) 「淺議許淵沖詩歌翻譯的三原則－詩壇翻譯的奇葩」, 『价值工程』.
- 金智英 (2017) 「尹東柱詩の翻譯問題再検討－茨木のり子による伊吹郷訳評價を通して」, 『境界を越えて: 比較文明学の現在』 · 17.
- 訳が詩を殺す…尹東柱の『序詞』について: 2018년 8월 6일 검색.
- https://blogs.yahoo.co.jp/ganho31/8020791.html?__ysp=5bC55p2x5p%2Bx6Kmp44Gu57%2B76Kiz5ZWP6aGM5YaN5qSc6KiO
- 중국어 단어 漢典 사전적 의미: 2018년 8월 10일 검색.
- <http://www.zdic.net/c/d/87/149678.htm>

[Abstract]

**Discussion of Yoon Dongju's poem translated into Chinese and Japanese
— focus on 'Foreword'**

Zhu, Yu
(Korea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mainly discusses how Yoon Dongju's poem is disseminated and understood in China and Japan. In this manuscript we chose the 'Foreword'. 'Foreword' is a masterpiece of Yoon Dongju. In an attempt to figure this out, we pivot on Yoon Dongju's poem which have already translated into Chinese and Japanese. Firstly, we examine whether or not Yoon Dongju's 'Foreword' is translated precisely and the poetic meaning is conveyed well in these two languages. So first looked at the contents and meaning of the text. Becaus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 makes the diversity of translation. Then we contrast the peculiarities in these two versions, and try to figure out the causes which seem based on the translators' distinctive understanding about the poem. First in importance comes considering that does the translation gain the locals' sympathy? This dissertation argues the translation of the poem based on the poetic theorization of translation. Particularly, based on the 'Triple Beauty' theory of translation within Chinese translation. Therefore, we propose that we should retranslate Yoon Dongju's poem which offers full of warm consolation and lovely emotion, but not the defiant, revolutionary, religious feelings which are presented in the Chinese translation.

▶ Keywords: Yoon Dongju, Foreword', theory of translation, Chinese translation, Japanese translation

▶ 주제어: 윤동주, <서시> 번역, 번역이론, 중국어 번역, 일본어 번역, 번역 비교

Zhu, Yu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zhuyu2008@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학, 문학비교, 고전문학번역

논문투고일: 2019년 2월 15일

심사완료일: 2019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9년 5월 28일